

10가구 중 4가구 '수돗물 먹는다' 만족도 58%, 환경·경제적 장점

환경부,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
수질 믿을 수 있다는 응답 '61.3%'
수질 관리, '수도관 교체' 가장 많아

우리나라 가구 10곳 중 4곳이 집에서 물을 마실 때 수돗물을 이용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3년마다 실시하는 '2024년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조사는 상수도 분야 주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국가승인 통계로, 수도법 제29조의2에 따라 진행되며, 2021년에 처음 실시됐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가 한국상수도협회에 위탁해 진행했으며, 전국 7만 2460가구를 표본으로 올해 4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방문해 실시했다. 조사 내용은 물을 마실 때 사용하는 방법, 수돗물에 대한 인식, 정책 만족도와 향후 방향 등 총 4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에서 물을 마실 때 이용하는 방법(중복 선택)으로 37.9%가 '수돗물을 먹는다(끓여서 포함)'고 응답해 2021년 36%에 비해 1.9%포인트(p) 상승했다. '정수기를 설치해서 먹는다'는 응답은 53.6%로



5일 환경부가 전국 7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7.9%가 수돗물을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2021년 대비 4.2%p 증가했으며, '먹는 샘물을 구매해서 먹는다'는 34.3%로 2021년 대비 1.4%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가구의 수돗물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만족'이 58.2%로, 이 중 '약간 만족'은 51.4%, '매우 만족'은 6.8%를 차지했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6.6%였다. 수돗물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이 수돗물에 대해 ▲'편리하다'(80.1%) ▲'경제적이다'(75.4%) ▲'수질을 믿을 수 있다'(61.3%) ▲'환경에 도움이 된다'(60.1%) ▲'건강에 도움이 된다'(47.2%) ▲'맛이 좋다'(36.3%)라고 생

각한다고 답했다.

수돗물 만족도 향상을 위해 강화해야 할 제도와 정책으로는 1순위 응답 기준 '원수(상수원)의 수질관리'(27.7%)와 '지자체의 노후 수도관 교체·세척'(22.8%)이 주요 항목으로 꼽혔다. 중복응답(1순위와 2순위 합산) 기준으로는 '지자체의 노후 수도관 교체·세척'(42.5%)이 가장 높았다. 이어 '주택 내 노후 수도관 교체 및 세척 지원'(38.0%), '정수시설 현대화·고도화'(36.1%), '원수(상수원) 수질관리'(35.3%) 순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노후 지방상수도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관망 정비와 정수장 개량 등을 포함하며, 2017년부터 현재까지 약 4조9000억원(국비 2조7000억원)이 투입됐다. 내년에도 전국 116개 지자체에 3991억원(국비)이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의견을 기반으로 상수도 기반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정확한 상수도 정책과 수돗물의 사회적 가치 정보를 더욱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농촌체험프로그램' 우수사례 6곳 선정

농식품부, 제주 서귀포 하례리 최우수

농촌 체험과 관련해 창의적 프로그램을 고안한 업체 6곳이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정부는 이 같은 공모전 개최를 통해 민간의 아이디어를 모아 농촌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서울 모처에서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열고, 독창성과 지역 특색을 담은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영체 6곳을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회는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농촌 지역의 경제 및 문화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프로그램 개발 과정과 성과 발표 ▲우수사례 시상식 ▲향후 농촌관광 방향 논의 등이 진행됐다.

수상작 외에도 지난 6월 선정된 40개 사업 대상 경영체들이 올 한 해 개발하고 운영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했다. 도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방문

을 이끌어낸 경영체 6곳에는 농식품부장관상, 한국농어촌공사사장상, 농어촌 자원개발원 원장상 등을 수여했다.

최우수상은 제주 서귀포 하례리 마을이 받았다. 이 마을은 막걸리 만들기, 김기 담그기 등 전통 체험과 제주 자연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농촌 지역의 경제 및 문화적 가치를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경남 하동 금향다원과 경남 밀양 열매가꾸른날이 받았다. 금향다원은 전통 차 문화와 다도 체험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했다. 열매가꾸른날은 블루베리나무 심기, 수확 등 가족단위 체험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장려상은 전남 안도 울도레마을, 전남 담양 창평권역, 경남 김해 한림알로에 등이 수상했다. 이들 경영체에서는 해양과 농촌이 융합된 유리공예 체험, 전통 장류 만들기 체험 등을 마련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비축유 대여절차 대폭 간소화할 것"

산업부 박성택 1차관 수출 현장 점검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석유제품·석유화학 수출액이 감소하는 가운데, 정부가 비축유종 다양화와 비축유 신속 대여 등 업계 애로 해소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성택 1차관(사진)이 5일 오후 충남 서산 소재 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을 방문해 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수출확대 방안을 업계와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석유제품·석유화학 수출액은 유가에 영향을 받는 수출단가 하락으로 인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8.7%, 5.6% 감소했다.

특히, HD현대오일뱅크의 경우 11월 마지막 주 기상악화로 인해 제품 운반선 5척과 원유도입선 3척의 입항 지연으로 수출·생산에 일부 차질이 발생했다. 같은 항만을 이용하는 HD현대케미칼의 경우도 5척의 제품운반선 선적

지연이 지난달 수출 감소로 이어졌다.

박 차관은 이날 수출 선적 및 생산 현장을 점검하며 "정부는 이번과 같이 예상치 못한 기상악화로 생산·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유사별 사용유종을 고려해 비축유 유종을 기존 중질유 중심에서 경질유 등으로 다양화하고, 기업 필요시 비축유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비축유 대여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최근 석유화학업계가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석화 생산현장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원료비 절감과 산단 내 기업 간 협력 강화, 고부가 스페셜티 분야로의 사업재편 등 방안에 대해서도 기업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K-방산 생태계 역량 선진국 대비 60%"

산업연, 글로벌 방산 생태계 최근 동향
수출 증가에도 전통적 생태계 한계
민간 혁신·수출산업화로 도약 모색

한국의 방산산업 생태계 역량이 선진국 대비 6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러·우 전쟁 이후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이 방위산업 생태계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K-방산 혁신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연구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방산 생태계 최근 동향과 K-방산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방위산

업은 최근 수출 증가로 생산과 고용 규모가 모두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나, 여전히 내수 및 기존 방산업체 중심의 '전통적 방산 생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요 측면에서 2022년 기준 방산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은 12%에 그친다. 공급 측면에서도 같은 기준 84개 정부 지정 방산업체 중 소수의 체계종합업체가 전체 매출액의 71%, 수출액의 92%를 차지한다. 여전히 방산중소기업과 함께 첨단민간기술 기업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다.

기술지원 인프라 측면에서는 ADD,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정부출연연구소가 국방 연구개발사업의 대부분을 주도하고 있고, 자금지원 인프라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대부분의 이차보전 및 보증 업무를 담당한다. 산업연구원의 방위산업 생태계 실태조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K-방산 생태계 역량은 선진국(미국=100) 대비 60% 수준이며, 생산성 58.7%, 강건성 58.5%, 혁신성 63.9%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글로벌 방산 생태계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펴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의 'K-방산 혁신생태계' 구축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47년 된 아파트, 지자체 직권 건축물대장 생성

공정위, '누락된 한 세대' 생성 권고

준공된 지 47년이 지났지만 건축물대장이 없던 아파트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77년 준공된 아파트단지 총 137세대 중 건축물대장이 없는 한 세대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새로 만들 것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1993년생인 A씨는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를 취득, 건축물대장 발급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는 건축물대장이 없다며 대장을 생성하려면 준공 당시 도면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1993년에 태어난 자신에게 1977년 당시 건축도면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권익위에 고충민

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단지는 1977년경 4개동 137세대로 준공돼 당시 건설사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고, 이때부터 재산세도 부과됐다. A씨가 취득한 해당 아파트는 가동 1층에 위치한 세대로 건물구조로 보면 준공 당시 건축됐을 것으로 추정되며 건물등기상 접수일자, 건물 주요현황이 일치했다. 해당 아파트단지 건축물대장 역시 가옥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을 거쳐 이기된 것으로 보이며, A씨 소유의 해당 아파트는 이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추정된다.

권익위는 이러한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건축물대장이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행정목적의 중요한 문서임을 지적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日 반도체 소부장기업 투자유치 총력"

코트라, 도쿄서 투자유치 설명회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5일 일본 도쿄 폐닌술라호텔에서 한국 진출에 관심 있는 일본의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80여개사 100여 명을 대상으로 '일본 반도체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 코트라는 한국 투자 환경을 발표했고, 일본 SMBC 은행은 일

본의 대한 투자 현황을 설명했다. 이후 국내 반도체 산업 동향, 지역별 투자 환경 등을 알리고, 법무법인 율촌과 삼정 KPMG는 한국 반도체 산업 투자세액 공제와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소개했다. 일본 기업들은 한국의 반도체 분야 대규모 투자에 따른 시장기회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대구시와 경기경자청은 참가 기업들과 1대 1 투자유치 상담회를 진행했으며, 6일에는 대구시, 경기경자청



김태형 코트라 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5일 도쿄에서 열린 '일본 반도체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코트라

과 코트라가 합동으로 국내 투자에 관심 있는 일본기업을 직접 방문해 향후 계획을 청취하고 한국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